“교사 행복, 교육현장에 큰 영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교사 마음공부 돕는 연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이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을 초대해 ‘교사의 행복찾기 · 서로를 살리는 공생 교실’을 개최했다.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은 스스로 마음의 힘을 알고 자신을 바르게 보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연수는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등 23명이 동참했으며 강의뿐 아니라 실습과 토론 등 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호응을 얻었다. 한마음과학원의 전문 강사진들이 맡은 프로그램은 크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과 관계 속 대화법,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습 시간으로 이뤄졌다.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5일 동안 진행된 연수는 △내면을 향하여 △내 마음 들여다보기 △내 인생의 드라마-마음 찾기 △교사로서의 ‘나’ 내 마음의 주인 되기 △마음을 여는 대화 △마음의 원리로 접근하는 학생지도 △촛불명상 △마음의 통신 △공생의 삶 △마음의 활용 △행복한 교사, 행복한 교실 △변화하는 나 등의 교과목을 다뤘다.

한마음과학원 혜찬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혜벽 스님, 황수경 동국대 교수, 박종래 서울대 교수, 이양희 동덕여대 명예교수, 정상만 철학박사, 우순열 다도 지도사 등 전문 강사들은 각 교과목에 맞는 전문 내용을 쉽게 풀어 전달했으며, 전 · 현직 교사인 강사들은 직접 마음법을 적용한 현장 사례 경험을

유치원 · 초중등 교사 23명 참가
4박5일간 강연 · 실습 등 체험해
마음법 적용한 현장사례 공유도
만족도 높아 후속 모임도 결성

구체적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주력했다.

소감문에서 한 교사는 “개인적으로 힘든 업무와 가정생활에서 소소한 갈등으로 피폐해진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참석하게 됐다”며 “연수가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변했다는 말을 아이들에게서 들었다. 앞으로도 마음공부를 하고 싶다. 그동안 잊고 무시해왔던 내 마음의 힘과 가치를 되찾는 값진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이 눈을 가린 채 스님의 지도에 따라 촛불명상을 체험하고 있다.

다른 한 교사는 “지난여름 방학 연수에 참가했던 교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참여했다”며 “모든 프로그램이 정성스럽게 진행돼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데 직접 와보니 어느 연수보다 정성이 가득했고 마음을 다해 도와주시는 모습에 나 역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다회에서는 찻자리를 마련해 차공양을 올렸으며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회에서는 연수가 열리는 5일간의 공양을 위해 팀을 짜고 식단 회의, 공양 준비 등 일체를 도맡아 정성을 기울였다. 오직 인재불사를 위해 교사 연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마련된 연수였기에 이번 연수의 의미는 더욱 크다. 특히 이번 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자발적인 후속 모임을 갖기로 결정하고 2월초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귀중한 일이다. 그러므로 교사들 한 분 한 분이 내면의 힘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이끌어주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인재 불사라 믿고 있다”며 “앞으로 교사 연수를 위한 연구 모임을 만들어 행복한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공생 교실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소자도 함께 느낀 명절 분위기

군산 성흥사, 군산교도소 설 차례 · 교화공연

군산 성흥사(주지 보위)가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군산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 설 차례 및 교화공연을 개최했다.〈사진〉 성흥사가 주관하고 마이산 탑사,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마하연 승가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관음선원 영전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 법문, 격려사, 영치금 전달, 설 차례, 교화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혹독한 어려움을 인욕으로 극복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 법전 스님과 지오 스님, 현진 스님은 재소자들이 차례를 지내는 동안 작법과 범패로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송월 스님은 모범재소자 10명에게 영치금을 전달했으며 재소자들에게는 떡과 과일, 음료수 등 간식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웃사랑으로 신년하례식

창원불교연합회, 성금 5000만원 사랑의열매에

명절 설을 맞아 창원불교연합회가 자비나눔을 실천하며 신년하례식을 봉행했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1월 17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제30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금강자비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풍성한 나눔으로 장식됐다. 이날 창원불교연합회와 금강자비회는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그리고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금강장학금 등 총 성금 5000만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사진〉

회장 월도 스님은 “30년 동안 이어온 자비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오늘 이 행사가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이의 마음에 자비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월도 스님 등 창원불교연합회 소속 회원들과 금강자비회 이사장 원문 스님, 허성무 창원시장, 이주영 · 여영국 국회의원, 한철수 창원상의회장,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한국불교승가회 심장병 환우 성금 전달

대한국불교승가회(총무원장 성보)는 1월 15일 불광사 법당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선천성 심장병 환자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시무식에는 원로위원 석산 스님을 비롯한 각 지구교구 종무원장과 지역 사암연합회 스님들이 참여했다. 이날 대한국불교승가회는 선천성 심장병 성금 50만원을 사랑실은교통봉사대에 전달했다.

총무원장 성보 스님은 “사회에 여러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잊지 않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깊이 새기며 불교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찰이 책임진 지역복지 30년

경남 창원 수산자비선원 창건 30주년 기념법회

창원에서 지역 복지와 나눔을 실천하며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수산자비선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주지 법상 스님은 포교와 복지로 불국토를 이루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창원 수산자비선원(주지 법상)은 1월 21일 선원 내 법당에서 ‘창건 30주년 기념법회 및 천도재’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세계불교 교황 가산 스님, 주지 법상 스님 등 스님 50여 명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민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천도재는 30년 동안 이어온 인연들을 위한 행사로 사단법인 수산자비선원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와 자비요양병원 등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낸 사람들을 위한 행사로 진행됐다.


30년간 지역복지에 앞장선 창원 수산자비선원의 30주년 기념법회.

법상 스님은 “30년 동안 도심 포교를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복지와 나눔의 공동체로 목숨이 다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수산자비선원은 1989년 6월 개원했다. 이후 노숙자를 위한 공간으로 회향하며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무료급식을 시작으로 전문 복지 활동을 위해 법인을 창립하고 자비요양병원 및 어르신 요양시설 자비마을과 병원을 운영했다.

법상 스님은 지난 7월 1일 복지나눔의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불교평화대상 시상식서 평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 종교복지 공로대상 및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새해 자비나눔으로 문 연 광주불교

동구불교協, 백미 · 장학금 전달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소운)는 1월 19일 광주 수자타 2층에서 ‘광주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경자년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사진〉 100여 명의 동구지역 사찰 주지스님과 정관계 인사,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된 행사는 1부 법요식과 통알, 기념법문,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소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 동구민의 평안과 불교발전을 기원하며, 모두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전백양사 주지 성오 스님은 기념법문에서 “불교를 믿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 깨달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불자들이 적극적인 수행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광주 동구청에 자비나눔 쌀 1000kg, 청소년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